

‘복심’에 발등 찍혀...3당 실험·대권가도 ‘빨간불’

창당 5개월만에 초강수

리베이트 의혹 5번 사과끝 퇴진

당 재정비까지 대흔돈 불가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29일 최고위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표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뒀다. 지난 2월 2일 국민의당을 창당한 지 5개월 만이다.

국민의당은 안 대표의 옛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에서 비롯됐고, 안 대표의 리더십으로 4·13 총선에서 예상 밖의 선전으로 확고한 제3당 지위를 구축했던 만큼 안 대표 사퇴 후 재정비까지는 대흔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7·30 재보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패배하자 안 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결과는 대표들의 책임”이라며 전격 사퇴를 선언한 바 있다.

▷선제 대응에 실패=총선 성과를 발판으로 대권 가도를 내달리던 안 대표를 궁지에 빠뜨린 것은 결국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안 대표가 처음 정치에 투신한 지난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을 탈당해 대선후보 캠프의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이끄는 등 안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자리 잡았다. 대선 이후 한동안 휴식기를 가지다가 올해 초 안 대표의 창당 시점에 맞춰 정치 일선에 복귀, 사무총장으로서 선거 실무를 진두지휘하며 기대를 뛰어넘는 총선 승리에 기여했으나 선거 실무를 다루는 과정에서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고, 이는 안 대표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안 대표의 첫 공식 반응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였다. 그러나 이후 검찰이 적용하는 혐의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가운데 결정적으로 왕중현 사무부총장이 구속까지 된 점을 보면 안 대표에게 보고와 조연을 하는 측근 그룹이 보좌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측근 인사가 연루된 사건임에도 전체적인 상황을 조기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퇴 기자회견까지 포함해 무려 다섯 차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다.

▷대권가도 빨간 불(?)=정치권에서는 안 대표가 3당 체제가 안착 되기도 전에 좋지 않은 모양새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그의 대권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진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말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당 대표에서 물러나 자연스럽게 대선 레이스에 뛰어올랐던 구상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아권 관계자는 “이번 파문에 대처하는 안 대표의 리더십을 보면서 당원들은 물론 국민도 상당히 실망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로 3당 실험은 물론 안 대표의 대권가도도 어두워졌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2012년 대선후보 사퇴, 2013년 신당 창당 포기 등 주요 국면마다 보여준 ‘질수정치’를 이번에도 반복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만, 대표직까지 던지며 책임지는 안 대표의 모습이 추후 ‘2보 전진’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총선 리베이트 의혹으로 국민의당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29일 오전 박지원 원내대표가 향후 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원투수 나선 박지원 “빠른 시일내에 비대위 구성할 것”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의총 참석 말라 의사 전달하겠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29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의 사퇴로 창당 이후 최대 위기 국면을 맞은 국민의당 구원투수로 나서 주목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통합당에서 비대위원장을 두 차례나 맡은 바 있어 당의 위기 상황을 수습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박 원내대표는 내년 초 차기 전당대회까지 비대위를 이끌면서 후보비 파문 의혹을 진화하는 한편, 당내 이견 조정과 향후 진로를 개척해 나가야 할 책무를 지게 됐다. 박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내에 비대위 구성을 완료, 최고위와 협의한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비대위를 구성할 예정이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는 해산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장으로 선임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전정배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말씀드리고 당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을 맡고서 내년 전대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지는 질문에 그는 “당내 수습이 우선이다”며 “개인 정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켜나갔다.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결정했고 최고위원 중에서도 비대위원을 맡을 수 있다”며 “신생당이므로 당을 아는 인사들이 비대위원을 맡아야 하고 신속하게 당내 현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의총 참여에 대해서는 “참석 여부를 제약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참석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후,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전정배 전 대표에게 비대위원장을 맡은 데 대해 말씀드리고 당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겠다”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을 맡고서 내년 전대에서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는지는 질문에 그는 “당내 수습이 우선이다”며 “개인 정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켜나갔다.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는 “추천을 받아서 결정했고 최고위원 중에서도 비대위원을 맡을 수 있다”며 “신생당이므로 당을 아는 인사들이 비대위원을 맡아야 하고 신속하게 당내 현안을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의총 참여에 대해서는 “참석 여부를 제약할 수는 없지만 스스로 참석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런 의사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했다. 이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의 사퇴에 대해 “책임 정치를 위한 결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두 분은 당의 소중한 잠재적 대통령 후보들이기 때문에 누가 당을 잠시라도 이끌더라도 주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총선 후보비 리베이트 파문 당사자인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자진 탈당”의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는 “두 의원이 ‘문제가 없는 데 왜 의원직을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있었다”며 “(두 의원들은 또) 만약 앞으로 기소되면 법정 투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결백을 믿고 있어서 어떻게 처리할 길이 없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5	12월 13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2016	2월 2일	국민의당 창당
	안·전 공동대표 선출·사무총장 박선숙	
3월 2일	박지원 원내총무, 국민의당 합류	
3월 5일	안철수, 김중권 의원들 합류	
6일	안철수, 수도권 연대 제안도 거부	
7일	안철수-김한길, 이관용합류에 정면충돌	
23일	비례대표 공천, 5번 박선숙 7번 김수민	
13일	총선시 지역구 25석·비례대표 13석 확보	
26일	박지원 원내대표로 추대	
5월 16일	안철수, 새누리당과의 현충일 일출	
8일	신관위, 리베이트 의혹 박선숙·김수민, 왕중현 검찰 고발	
10일	안철수, 리베이트 의혹 첫 사과	
16일	왕중현 사무부총장 구속·박선숙 검찰 송치, 안 세 번째 사과	
20일	안철수, 두 번째 사과, “정·당·법·당규약 변경, 당헌 개정”	
23일	김수민 의원 검찰 송치	
27일	왕중현 사무부총장 구속·박선숙 검찰 송치, 안 세 번째 사과	
28일	안철수, 의원총회서 본인 책임론 제기, 내비대 대국민사과	
29일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 동방 사퇴	

▷비대위 체제로=일단 국민의당은 지도부 공백을 메울 임시 체제로 ‘비상대책위원회’를 선택했다. 그리고 위원장에는 박지원 원내대표를 추대했다. 비대위가 구성되면 최고위원회는 해산된다.

당헌 제30조에 따르면 당 대표 결위(공석) 시에는 두달 안에 임시 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 당 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 중 대표 직무대행을 뽑을 수 있으며, 원내대표는 대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당헌에 따르면 당 대표가 결위되거나 최고위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생기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 비대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갖게 된다. 비대위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존속된다.

국민의당은 비대위 임기를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로 했다. 따라서 ‘박지원’의 비대위는 정상적으로 현 지도부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말 전대를 준비해야 한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20대 국회 출범 한달만에...3당 모두 대표 없는 비대위체제로

제20대 국회가 공식 출범한 지 한 달 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여야 3당이 모두 대표가 부재한 임시 지도부 체제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놓였다.

지난 4월 총선 이전부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던 더불어민주당과 총선 직후 비대위로 전환한 새누리당에 이어 국민의당마저 리베이트 의혹 파문으로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가 사퇴, 비대위 체제로 전격 전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는 여야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의정 활동이 펼쳐지게 됐다. 국민의당은 지난 2월 2일 창당대회를 통해 안철수·전정배 공동대표와 7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된 지도부를 출범시켰지만 다섯 달도 채 못 돼 지도부 와해 위기를 맞게 됐다. 당 최고위원회는 29일 안·전 대표의 사퇴로 지도부 공백이 발생할에 따라 비대위 체제로 전환, 박지원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총선 참패 이후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총사퇴, 무려 50일 가까이 사실상의 ‘지도부 공백’을 겪다가 지난 30일 김희옥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혁신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다만, 새누리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야 3당은 모두 올 하반기에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 본격적인 대선준비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8월 9일, 더민주는 8월 27일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공식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연말 전대 개최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전대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다만, 새누리당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여야 3당은 모두 올 하반기에 전당대회를 열고 차기 지도부를 선출해 본격적인 대선준비 체제로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오는 8월 9일, 더민주는 8월 27일 각각 전당대회를 열어 공식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민의당은 연말 전대 개최를 계획하고 있지만 지도부가 붕괴하면서 전대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보청기난청센터 GWANGJU HEARING AID CENTER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보이지 않는 보청기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원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362-3336 (광주 돌고개역 2번출구 대형약국 3층)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160406-중-81650호
www.sejonghospi.com

세종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

치료중점·어르신 중점진료 인공신장실, 전문재활치료실

세종요양병원은 수술 후 재활, 뇌졸중, 요양, 암, 치매, 인공신장실, 집중치료실 등
요양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분을 위해 마음까지 치유하겠습니다.

전문 재활치료실 운영

운동/작업/통증치료실 운영 재활의학과 전문의 남두현 원장

진료분야 중추신경계
-뇌신경계 : 뇌출혈, 뇌경색, 외상성뇌손상, 뇌종양
-척추신경계 : 외상성척추손상, 척수종양, 척수염

근골격계
-수술 후 회복 재활 : 인공관절치환술, 골절, 인대손상
-통증재활 : 스포츠손상, 관절염, 근육손상, 근막통증후군

세종요양병원
▲전남대병원에서 광주전편 방향

장기요양·수술후 재활·암케어병동·치매·중증·집중치료실·인공신장실 대표전화 (062)236-5200
의사·한의학 협력 진료 병원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453(금동 211-10)